겉에 입은 옷만 보는 눈먼 안목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㊽ 알음알이

"산승이 오늘 법을 쓰는 것은 진실하고 바르게 이루어 놓기도 하고 부수어 버리기도 하며 마음대로 신통 변화를 부려 모든 경계에 들어가되 어디서나 아무 일이 없어서 산승의 경계를 바꿀 수가 없느니라. 다만 와서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곧 그를 알아보나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몇 가지 옷을 입으면 학인은 옷을 보고 알음알이를 내어 한 결같이 나의 말에 말려들고 마느니라. 괴롭도다. 눈멀어 안목 없는 머리 깎은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붙잡고 푸르다, 노랗다, 붉다, 희다, 색깔만 인식하느니라. 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청정한 법신의 경계로 들어가면 학인은 한 번 보고 기뻐하다가 내가 또 옷을 벗어버리면 학인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망연히 미친 듯이 달아나며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느니라. 내가 곧 그에게 말하되 '내가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라고 하면 그때야 홀연히 고개를 돌려 나를 알아보느니라."

법을 쓰는 것은 무위진인(無位眞人)의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진여의 작용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진여가 바로 각(覺)의 본체인 마음이다. '이루어 놓기도 하고 부수어 버리기도 한다' 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활자재(死活自在)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왕이 칼을 잡은 것과 같다(如王秉劍)' 고 비유한 말이 어록에도 가끔 나온다.

깨달은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얕은 경계를 알아보지만 깨닫지 못한 이는 깨달은 이의 깊은 경계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도가 같아야 바야흐로 알아본다(同道方知)"고 하였다. 〈법성게〉에도 "증득한 지혜라야 알 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證智所知非餘境)"고 하였다.

수행의 내공(內工)이란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도(道)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련된 기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비록 일대시교(一代時教)인 8만4천 법문을 설했다 하지만 실법(實法)이 아닌 방편설이라 한다. 그래서 교(教)의 말을 곡담(曲談)이라 하고 선(禪)의 말을 직설(直說)이라 말하기도 했다.

규봉(圭峰)은 부처님의 말씀은 활등과 같고 조사(祖師)의 말씀은 활줄과 같다고 비유해 말하였다. 선수행에 있어서는 말에 놀아나는 것을 금기시킨다. 이론적 논리를 대입하려는 것을 사구(死句), 곧 죽은 말이라 하고 실참(實參)을 하는 공안을 두고 활구(活句), 곧 살아 있는 말이라 하였다. 깨달은 경지를 활구소식(活句消息)이라 한다.

눈먼 안목 없는 사람들이 겉에 입은 옷의 색깔만 보고 알음알이를 낸다고 개탄을 한 임제는 누가 옷을 입고 누가 옷을 벗느냐 묻고, 입고 벗는 주인을 바로 알라 다그친다. 선의 법문은 모두 ' 주인공 ' 찾는 법문이다.

사람의 몸을 옷이라고 말한 선사(禪師)도 있었다. 나고 죽는 생사를 옷을 입고 벗는 것이라고 설한 임종게를 남긴 고려 때 자진 원오(慈眞 圓悟, 1215~1286)의 송(頌)이 있다.

"내일 갈 테니 많은 말 않겠노라. 태어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이오, 죽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다.(明將行矣 不欲多語 生也如着裙 死也如脫裾)"

또 앉은 채로 돌아가는 것을 좌탈(坐脫)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도 '벗는다' 는 뜻이 있다. 누워서 죽건, 앉아서 죽건, 서서 죽건, 죽는데 무슨 자세가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생사를 초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안으로 수행한 힘이 없으면 좌탈입망(坐脫立亡)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대등은봉(五臺鄧隱峰)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입적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생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선은 말의 논리나 철학적 사유를 떠나 있으면서도 교리나 철학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러면서도 가장 평범한 말로 옷 입고 밥 먹는(著衣喫飯) 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문관(無門關)〉 제 7칙에 조주세발(趙州洗鉢) 이야기가 있다. 총림에 처음 온 스님이 조주에게 인사를 드리고 잘 지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조주가 물었다

"아침에 죽 먹었는가?" "예" "그러면 발우를 씻게나" 〈끝〉

〈반야불교연구원장〉

"비둘기소리"라 한 것 왜 비방일까?



세상 속 경전읽기

㊽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첫눈 치고는 꽤 많은 눈이 와, 발등이 묻힐 정도로 쌓여있다. 오늘은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밝은 태양이 빛난다. 거실에서 유리창을 뚫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눈 덮인 뜰을 바라본다. 눈송이 꽃을 손에 든 솔잎도, 나목의 하늘 끝 작은 가지도 미동(微動)조차 없다. 작은 바위에 정좌한 석불은 어깨에 백설가사를 걸친 채 삼매에 잠겨있다. 이따금 한 포기 억새의 보일 듯 말 듯 하늘거리는 손짓은 삼매를 깨지 않으려는 미풍의 조심스러움이다. 흔들리지 않는 솔가지에서 간혹 눈송이 일부가 수직으로 땅으로 내려앉는 것은 그 미풍 탓일까.

보자 현각(賢慈 玄覺) 도사(導師) 행언(行言)은 푸젠(福建)성 남동부 취안저우(泉州) 진장(晋江) 사람으로 법안 문익(法眼 文益)의 법사(法嗣, 법통을 이은 후계자)이다. 당 멸망 후, 5대 10국(五代十國) 중의 하나인 남당(南唐, 937~975)의 군주가 금릉(金陵, 현 중국 장쑤성 성도 난징)에 보자원(報慈院)을 세워 행언을 주지로 모셨다. 행언은 여기에 머물며 크게 선도(禪道)를 천명하였다.

"현각 도사가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듣고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한 스님: '집비둘기[鵓鴿] 소리입니다.'

현각 도사: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지 않으려면 여래의 정법[正法輪]을 비방하지 말라.' "

이 짧은 선화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27권, 〈연등회요(聯燈會要)〉 27권에도 나온다. 현각이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듣고, 곁의 스님에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비둘기 소리라고 답하자, 현각은 '불법(佛法)을 비방 말라' 고 하였다. 비둘기 소리를 비둘기 소리라 하는데 왜 정법(正法) 비방일까?

〈능엄경(楞嚴經)〉에 깨닫는 법으로, 중생 근기에 따른 25원통(圓通, 두루 원만해, 막힘없이 융통함)이 있다. 능엄회상의 보살 · 성문들이 각자 택한 행법을 말한 것이 18계(界)와 7대(七大, 地 · 水 · 火 · 風 · 空 · 見 · 識]를 통해 들어가는 25원통이다.

여래께서 문수보살에게 '아난과 무불시대 중생이 보살승(菩薩乘)에 들어가 무상도(無上道)를 구할 때, 25성도(成道) 방편 중 쉽게 성취할 방편' 을 묻자, 문수는 '관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소리, 청각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행)이 최고의 수행법' 이라고 게송으로 답한다.

"대중 및 아난이여 / 여러분의 전도(顚倒)된 문기(聞機, 듣는 기관) 돌이켜 / 듣는 성품 되짚어 들으면 / (그) 성품이 무상도(無上道) 이루리니 / 원통(圓通)이란 실로 이러니라."

여섯 감관[六根]이 6진(塵)을 만나 6식(識)을 낸다. 번뇌는 6근(根)이 6진을 좇아 밖으로 흘러나갈 때 생긴다. 번뇌가 다하려면, 6근의 흐름을 거슬러 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6근(根)은 일정명(一精明, 한 밝은 정신, 自性)이 여섯 갈래로 나뉜 것이다. 마치 6각 석등 내 원숭이 한 마리가 이곳저곳에 얼굴 내밀듯이. 6근의 근원은 일정명이고, 6근 모두 흐름을 거슬러 회귀하면 번뇌 없는 일정명[自性]에 이른다.

6근 중 이근(耳根, 聞機)은 자나 깨나 열려 있고, 소리(聲, 動)뿐 아니라 무성(無聲, 靜)도 듣는다. 늘 작용하는 '이근[문기]의 내입이 자성 회귀(反聞聞自性)' 의 첩경이고, 마땅히 불자 최고의 수행이다. 수행자의 이근이 밖에 팔려 있는 것은 '정법을 비방함' 이라 경책 들을 만하다. 〈끝〉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깨침의 길 9

유식의 깨침 5단계

〈唯識〉

"집착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는데도, 왜 자꾸만 집착하게 될까요?"

집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절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간혹 던지는 질문이다. 그들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을 잡아보지만, 그 다짐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곤 한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동안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에너지가 무의식에 가득 차있는데, 한두 번 마음먹는다고 사라지겠는가. 마치 수십 년 피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기 힘든 이치와 같다. 집착이 쌓이는 데 들인 시간만큼, 비우는 데도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를 서구 사회에 전파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善)을 행하지 않으며,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악(惡)을 행하도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한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행동은 반대로 흐르는 현상, 즉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 사이의 넓은 간극은 우리 모두 실존적으로 느끼는 문제다. 불교에서 행하는 명상과 기도, 주문, 참회 등의 수행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수행이 깊어졌을 때 비로소 마음으로 선을 원하면 행동도 선한 방향으로 흐르고,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면 실제 행동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유식에서는 몸과 마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단계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유식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일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랫동안 무의식에 쌓인 업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갖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유식의 수행은 이러한 편견(識)을 지혜(智)로 바꾸는 실천이다. 이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하는데, 편견과 미망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 깨침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까지 점차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유식에서는 미망에서 벗어나 깨침에 이르는 과정을 다섯 단계(五位)로 설명한다. 첫째로 자량위(資糧位)는 깨침이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해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信) 이해하는(解) 일이다. 붓다가 강조한 것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지혜를 통해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행위(加行位)는 믿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수행에 힘을 쓰는 단계다. 이런 정진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통달위(通達位), 즉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번뇌가 소멸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경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수행을 마치는 것일까? 유식에서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인 습기(習氣)가 저 깊은 무의식에 남아서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 계속 되어야 한다. 네 번째인 수습위(修習位)가 그것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가면 완전한 지혜를 얻는 다섯 번째 단계인 구경위(究竟位)에 이르게 된다. 몸과 마음, 앎과 삶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경지다.

이처럼 유식에서는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그런데 자량위에서 통달위까지 1아승지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없이 윤회를 반복하면서 무한한 시간 동안 수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아는 대로 살게 되는 구경위(究竟位)까지는 또 다시 2아승지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총 3아승지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겁(劫)이라는 무한한 시간은 한 생각 스쳐 지나는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성게(法性偈)〉에서도 "무량한 겁이 곧 한 생각(無量遠劫卽一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관건은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3아승지겁의 시간이 한 순간으로 압축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겁을 내고 물러날 필요는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끝〉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